

제 244호 · 2014년 2월 19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정책·사업동향

1. UPS, 영국 헬스케어 물류기업 인수로 글로벌 헬스케어 물류네트워크 확대
2. 카자흐스탄 철도운송량 증가 전망
3. 잘못된 컨테이너 포장으로 인해 수백만불의 손실 발생
4. 브룬디(Brundi), 케냐 항만공사와 물류연계 협력 강화

물류시장동향

1. DB Schenker, 아시아 통합 육상운송 서비스 개시
2. 영국 자산회사 SERGO, 유럽지역 물류 부동산 시장 진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 · 사업동향

□ UPS, 영국 헬스케어 물류기업 인수로 글로벌 헬스케어 물류네트워크 확대

- UPS는 2014년 영국의 의약품 공급 전문 물류기업인 Polar Speed사를 인수함으로써 유럽 전역으로 UPS 헬스케어 물류 네트워크를 확대
 - UPS의 이번 인수는 헬스케어 물류시장 확대 전략 중의 일부로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물류시장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특히, Polar Speed사는 고객 신뢰도가 매우 높은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환자, 약국, 병원, 도소매점에 대한 온도 조절 배송에 특화
 - 이번 UPS의 인수 발표는 2013년의 헝가리 의약품 물류회사인 CEMELOG 인수, 중국 항저우의 헬스케어 물류센터 개장, 북미 전역에 6개의 헬스케어 물류센터 확장에 이은 것으로서 UPS는 의약품 물류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 중
- Polar speed사는 보관 및 배송에 민감한 의약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운송서비스 품질 보증, 관련 규정 준수, 모니터링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UPS의 헬스케어 물류시장 확대 전략에 적합
 - Polar speed사는 포장 배달, 보관 및 유통, 약국 및 가정 배달, 실시간 화물 추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섭씨 2-8도, 섭씨 15-25도를 유지하여 냉동운송이 가능한 118대의 차량을 운용 중
 - BOA(Bank of America)의 자회사인 메릴린치(Merrill Lynch International)가 인수 계약을 진행 하였으며, 구체적인 인수조항은 미발표
- UPS는 이번 인수를 통해 3개의 헬스케어 물류센터를 추가함으로써 전 세계에 총 45개의 헬스케어 관련 물류센터를 확보운영
 - 또한 Polar Speed사의 우수한 서비스 노하우를 기존 UPS의 서비스와 접목하여 한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UPS가 헬스케어 물류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
- 이러한 UPS의 전문화된 포장 운송, 보관 및 유통, 품질관리, IT 등 광범위한 분야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헬스케어 관련 기업의 부가가치도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
 - 즉, 모든 정보는 글로벌 IT 주문관리 시스템으로 관리되어, 지역별·국가별 복잡한 규정, 기업환경 변화 및 글로벌 고객증가에 따른 서비스 신뢰도 제고 등에 대한 제조기업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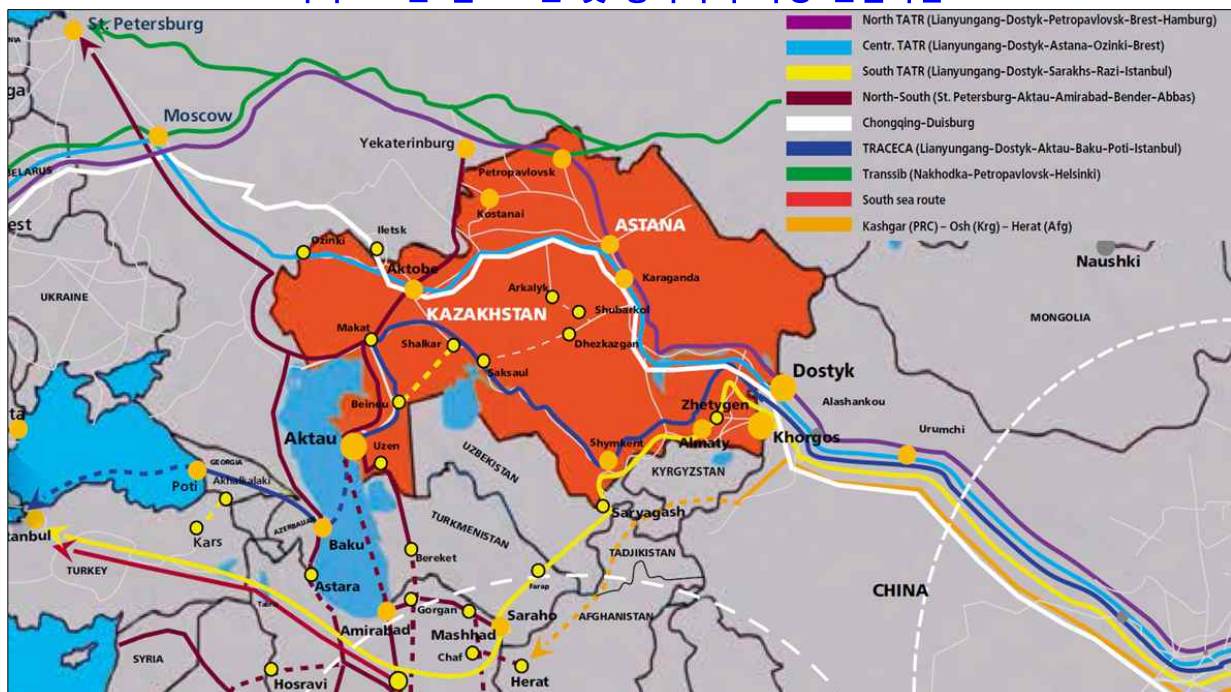
자료 : www.supplychain247.com, 2014.2.11.

김근섭 전문연구원 (☎ 02-2105-2846, gskim@kmi.re.kr)

□ 카자흐스탄 철도운송량 증가 전망

- 카자흐스탄 국영철도회사인 KTZ(Kazakhstan Temir Zholy)가 2013년 운송 실적을 발표
 - 2013년의 전체 운송량은 1,600만 톤에 달하며, 컨테이너 운송량은 2012년 대비 4% 증가한 27만 TEU에 이른다고 발표
 - 특히 카자흐스탄을 통과하는 컨테이너 물동량(Transit container)은 2012년의 3,490TEU에서 61% 증가한 5,630TEU를 기록
- 또한 카자흐스탄의 2014년 철도 운송량은 2,1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기존의 Dostyk 국경 라인에서 1,750만 톤, 작년 말에 개장한 Altynkol 국경 라인에서 400만 톤을 처리할 예정
 - 한편 2014년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 증가한 약 32만 TEU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국경의 철도연결 시 기존의 도스탁-알라산커우(Dostyk-Alashankow) 라인 이외에도 2013년 말에 신규로 알틴콜-호르고스(Altynkol-Khorgos) 라인을 개설

< 카자흐스탄 철도노선 및 중국과의 국경 연결지점 >



자료 : KTZ 2012년 연차보고서

자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2014.2.13. / KTZ 2012년 연차보고서

송주미 전문연구원 (☎ 02-2105-2872, jmsong@kmi.re.kr)

□ 잘못된 컨테이너 포장으로 인해 수백만불의 손실 발생

- 운송 및 물류보험 전문기관인 TT Club의 분석에 따르면 컨테이너 화물의 손실이나 파손 사고의 2/3는 잘못되었거나 부실한 컨테이너 포장 및 고박으로 인해 발생
 - 선사화물사고 알림시스템 결과에서도 조사된 사고의 1/3이 컨테이너 포장 및 고박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 소송 및 보험비용을 제외하더라도 화물파손으로 인한 직접비용, 운영손실 및 관리혼란 등으로 인해 산업계에 큰 피해 수반
 - 화물의 부적절한 포장이란 복합운송 과정에서 화물이 동적으로 작용하는 압력에 대한 적절한 인식 부재, 컨테이너 등 화물운송단위 내 화물의 부적절한 무게배분이 야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고려없이 화물포장이 이뤄졌을 경우 발생하며 종종 화물 파손 사고로 연결
- 컨테이너 화물의 잘못된 포장과 고박은 종종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산업, 법, 그리고 보험 업계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음
 - 잘못된 포장으로 인한 컨테이너 사고는 단지 금전적 손실의 문제 뿐 아니라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
 - 그러나 컨테이너는 운송과정에서 선적, 하역, 적재, 환적 등 다양한 처리과정을 거치므로 포장 부실이 의심되더라도 사고에 대한 정확한 책임소재 파악 곤란
- 따라서 선박, 터미널, 창고 및 물류 거점에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작업자에 대한 컨테이너 포장 전문교육은 점차 필수과정으로 정착
 - 이러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CTUpack e-learning™ course 같은 화물의 포장에 관한 온라인 교육 과정이 개발 및 적용 중
 - 훈련과정은 주로 컨테이너 운송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화물의 포장 및 고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설명한 후 적절한 상황별/화물별 포장방법 제시 및 강의
 - 교육 도중에 지속적으로 이수자의 성취정도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며, 마지막에는 그들의 최종점수에 따라 수업이수완료 인증 수여
 - 해당 온라인 프로그램들은 웹을 통해 교육이수가 가능하며, 정부 또는 회사의 훈련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수 가능
 - 이러한 교육 과정은 관련 기업들이 잘못된 포장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바르게 인지할 수 있게 해주고, 적절한 포장에 대한 가이드 제공이 목적
 - 온라인 교육 과정은 ILO/IMO/UNECE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제작되었으며, 향후 UN 및 산업계의 가이드라인 변화시 해당 변경내용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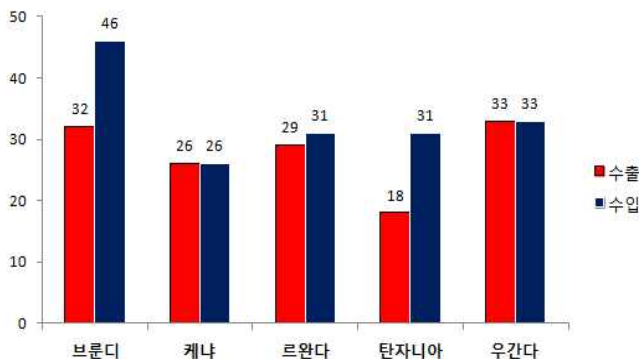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2014.2.15.

전형모 전문연구원 (☎ 02-2105-2817, hmjeon@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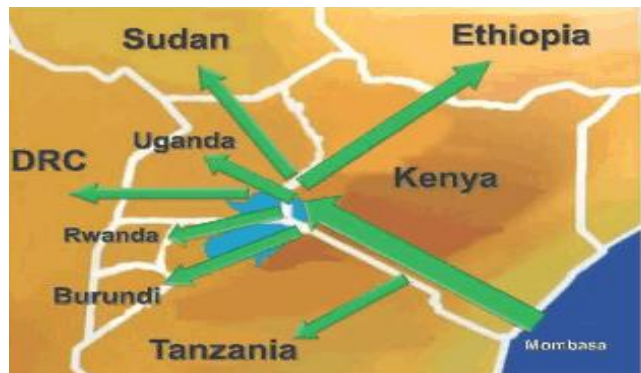
□ 브룬디(Brundi), 케냐 항만공사와 물류연계 협력 강화

- 내륙에 위치해 있는 브룬디의 수출입 물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케냐항만공사(KPA)의 연락 사무소를 브룬디 수도에 개소
 - 연락사무소는 부룬디의 수출입 화물이 케냐의 몸바사항까지 운송되는 중에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
 - 사무소의 개설에 따라 아프리카의 북쪽회랑을 따라 발생하는 운송서비스 문제도 점차적으로 해결 할 계획
 - 이 회랑은 부룬디를 포함한 동아프리카의 내륙국가들과 연결되어 있음
- 브룬디를 포함한 내륙국가들의 문제점은 항만과 떨어져 있어 물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
 - 특히 브룬디의 경우 수출 시 32일 소요, 수입 시 46일이 걸려 다른 국가에 비해 긴 운송시간 소요
 - 지리적인 문제와 통관절차의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어 행정적인 개선이 필요

< 브룬디 포함 기타 국가들 수출입 소요일 >



< 케냐와의 물류네트워크 >



자료 : www.businessmonitor.com,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 사업(2014.02.18.검색)

- 내륙국가들이 탄자니아와 케냐를 통하여 수출입을 할 수 있으나 케냐의 연락사무소 설치로 주로 몸바사항을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날 전망

자료 : www.businessmonitor.com, 2014.2.11.

전혜경 연구원 (☎ 02-2105-2982, saeii@kmi.re.kr)

물류시장동향

□ DB Schenker, 아시아 통합 육상운송 서비스 개시

- DB Schenker는 아시아 지역의 통합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시아 랜드브릿지(Landbridge)' 발표
 - 새로운 서비스는 일관 운송이 가능토록 23개 주요도시의 거점을 중심으로 국경지역을 왕래하는 화물운송과 통관 서비스를 제공
 - 화물은 각 지역 전문지식을 가진 파트너사의 연합체인 컨소시엄을 통해 운송되며 DB Schenker는 각 회사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 아시아 랜드브릿지의 네트워크는 중국을 비롯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과 라오스 등 아세안(ASEAN) 지역을 포괄
 - 최신의 무진동 차량을 이용한 특수서비스는 전자제품과 같은 민감한 고가의 제품도 운반할 수 있으며 감시 카메라, 경보시스템, GPS 추적을 통해 안전하게 수송이 가능
 - 서비스 대상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로, DB Schenker에서는 관제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글로벌 네트워크와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

자료 :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4.2.13.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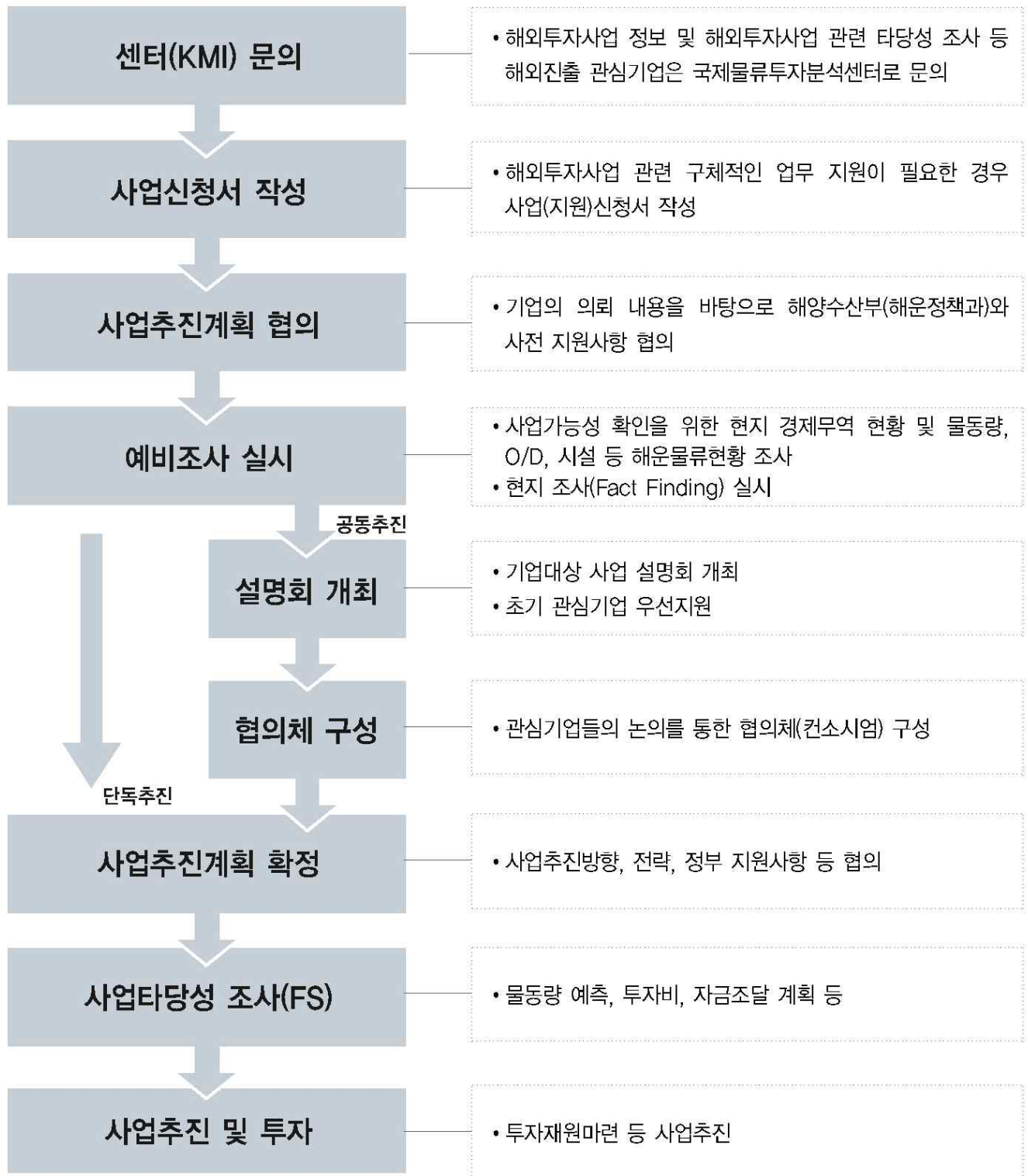
□ 영국 자산회사 SERGO, 유럽지역 물류 부동산 시장 진출

- 영국 자산회사 SERGO는 유럽지역 내 물류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인수 결정 발표
 - 영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신탁 회사 중 하나인 SERGO는 자산투자회사인 Tristan Capital Partners와 AEW Capital로부터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에 위치한 약 €470m 규모의 물류 부동산 자산 인수 결정
 - 이번 인수 계약은 'SERGO European Logistics Partnership'(SELP)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세부적인 인수 작업은 2014년 2분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
 - SERGO와 함께 SELP(joint venture)를 설립한 PSP Investment 역시 이번 계약을 통해 향후 물류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 움직임을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
- SERGO는 이번 인수 계약을 통해 확보한 물류 부동산들을 활용하여 유럽 내 주요 물류업체인 Deutsche Post, Kuehne and Nagel Group, DB Shenker, 그리고 Geodis 등을 대상으로 물류시설 임대업을 개시할 예정

자료 :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4.2.13

민경창 연구원 (☎ 02-2105-2741, kcmin0525@kmi.re.kr)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